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12월 정기당회(10일)에서 98년도 일꾼 결정

결산의 달 12월,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들

제직 및 교구일꾼은 14일,

교사 및 찬양대원, 위원회일꾼은 21일에 각각 임명

12월이다. 올 일년 동안 수고한 제직 및 교구일꾼들은 작년 12월 8일에, 그리고 교사 및 찬양대원, 위원회 일꾼은 12월 15일에 각각 임명받았으니 벌써 일년이 다 지났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일년을 돌아보면서 결산할 때가 되었다. 매해 반복되는 이 결산의 시간은 잠시 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그 날의 그림자다. 일년을 되돌아보는 일에 충고한 무개가 실리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충현의 성도들은 사람과 조직과의 관계 이전에,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일년을 돌아보는 자세로 12월을 보내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조직이 방대하고 복잡한 편이다. 따라서 자칫하면 일꾼으로 임명받은 후에도 게으름을 핑계로 슬며시 숨어 지내기가 용이하다. 또한 부서간 협력이 활발히 움직이지 어려울 때가 더러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교회 성도들은 거대한 조직과 규모에 비해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의 움직임이 느릿하다는 느낌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대다수 말은 자들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엮어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간다는 느낌을 가지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개월에 걸쳐서 끊임 없이 선포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복잡한 구조와 행사들이 단순하고 명백한 신앙으로 정리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 교구, 어느 부서, 어느 위원회 소속인가 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참 일꾼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임명받는 성도들이 조직 안에서 자신을 감추기보다는 점점 더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들로 나아가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말씀 앞에 드러나 매일 새로워지는 참된 일꾼으로 변모해 가는 것이다.

이제 한 두 주일 안으로 1998년도 일꾼 결정과 임명이 완료된다. 이번 12월 정기당회(10일)에서는 98년도 일꾼들을 최종 결정하게 되며, 따라서 14일 주일에는 제직 및 교구일꾼들이, 21일 주일에는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 각 위원회 일꾼들이 각각 임명받게 된다. 그리고 14일 주일 찬양예배 후에는 교구총회가, 21일 같은 시간에는 찬양위원회 총회가 있게 되며, 교회학교 교사 총회는 23일(화) 저녁 7시에 갈릴리 홀에서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교회일꾼으로 임명되는 모든 성도들은 임명과 총회 등으로 바쁜 일정 속에 문혀 별다른 반성과 각오 없이 보내는 12월이 되지 않도록, 기도와 묵상으로 잘 준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년

도에 임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사람의 일꾼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일년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마음모아 준비해야 하겠다.

계속되는 교구별 영성훈련

교구별 영성훈련이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다. 매 교구마다 거의 150여명씩 참여하여 충현기독교원에서 진행되는 교구영성훈련을 통하여 교구 식구들은 얼마였던 생활의 질고들을 뒤로 하고 주님과 조용히 대면하여 기도함으로 마음에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소중한 간증들을 안고 돌아온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하여, 섬기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영적 기쁨의 충만을 경험한다.

지난 주에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관계때문인지 그 숫자가 다소 줄기는 했으나, 영성훈련을 향한 열기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에는 7교구와 8교구가 각각 화, 목요일에 들어가서 영성훈련과 더불어 숙소 및 숙소 주변 청소를 하고 돌아왔다.

이번 주에는 9, 10교구가 들어갈 예정이다.

부교역자들 기도원 사역
12월에는 이종대 목사

지난달부터 시작된 부교역자들의 '기도원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다. 부교역자들의 이 기도원사역은 충현의 가족들이 기도원을 더욱 사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에 따라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성도들은 사실 및 환경보수가 속속 이뤄지고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원에 한달씩 상주하는 교역자와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으며,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그동안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인도하던 금요철야집회는 기도원에 거주하는 교역자가 담당키로 하였다. 12월 기도원 담당 교역자는 이종대 목사(6교구, 교육위원회 지도)이다.

◆물맷돌◆

한국 교회와 새벽기도

평양에 위치한 큰 교회인 중앙교회의 한국인 목사 김선주는 평양의 신도들에게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것을 느끼고 자기 교회의 장로 한 사람과 매일 새벽에 기도하러 예배당에 가기로 결심하였다. 이 두 사람은 겸손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매일 새벽 4시면 기도하였으니, 이리기를 두 달을 계속하였다. 그러자 그 사실은 점차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기도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어나게 되었다. 길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임을 알고는 누구든지 원하는 이는 자기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새벽 4시 반이면 종을 치도록 하겠노라고 주일 예배시에 회중에게 광고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에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오기 시작하였다. 벌써 새벽에 수백명이 모였다. 처음 종을 울렸을 때는 4, 5백 명의 교인들이 모여있으며 2, 3일 후에는 6, 7백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4일째 되던 날, 기도 중에 갑자기 온 회중이, 자신들이 무관심하고 냉냉하며 봉사할 마음이 적고 열심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통회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그들은 죄를 사함받는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갖게 되었다.

- 김명재, 한국교회사 중에서 -



제4회 충현 찬양의 밤 지난 11월 28일 저녁 7시 30분은 우리 교회 전 찬양대와 많은 성도들이 찬양 가운데 한데 어우러져, 그야말로 '주님을 노래하는 기쁨의 충만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다.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대원이 된 충현찬양대(1)를 필두로 하여서 7개의 찬양대와 남성중창단, 그리고 크로마하프·만돌린, 핸드벨콰이어 등 총 10개 팀 686명의 아름다운 찬양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다. 충현찬양대의 249장 찬송 '주 사랑하심 자 다 찬송할 때에'와 더불어 핸드벨 콰이어의 수정 같은 맑은 음율로 시작되어 연합찬양대의 웅장한 할렐루야로 마친 이번 찬양의 밤에는 약 2,50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선민 중에 남은 자

(이사야 10:20-27)

이 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후 북 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하여 형제 나라인 남유다를 삼키려고 전쟁을 도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다를 점령하기도 전에 동맹국인 아람이 배반하여 강대국 앗수르와 손을 잡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동맹국이었던 관계로 자신들의 내부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람이 강대국 앗수르를 앞세우고 쳐들어 오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꼼짝 못하고 망하였습니다. 앗수르는 아람과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정벌하는 동안에 아람의 내막을 파악해 두었다가 그 허점을 찔렀습니다. 이렇게 되어 아람도 앗수르에게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앗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 유다를 삼키려고 쳐들어 옵니다. 위태로워지자 유다 백성은 두 무리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앗수르에게 망할 것이다. 앗수르는 벌써 많은 나라를 점령했다. 그러니 우리 작은 유다가 앗수르와 싸워 보았자 질 것이니 일찌감치 항복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신앙을 저버리고 앗수르와 내통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이고 국가적으로는 나라를 팔아 먹는 반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에는 이에 가담하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란 하나님의 참된 백성입니다.

1. 남은 자란 누구입니까

(1) 하나님만 믿는 자입니다

권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감히 손댈 자가 없다고 믿는 자, 하나님은 자비하시므로 우리가 비록 죄가 많아도 회개만 철저히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 하나님은 신실하시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버리는 법이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2)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생활하는 자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개인의 명예나 물질이나 욕심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갑니다. 시국의 형편을 따라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갑니다. 인정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 갑니다.

(3) 절개를 지키는 자입니다

'플같은 인생은 땅에서 장생불사할 수 없고 어느 때 죽어도 죽을 것이니 신앙의 절개를 팔아 먹을 수 없다'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절개를 지키려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4) 하나님의 품으로 주소를 정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종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서 죽고 살아가도 하나님의 품에서 살지 영혼의 주소를 옮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주소를 정한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총헌교회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 남은 자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1)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돌아오리니..."(22절)

요셉은 다른 나라에 팔려간 노예로 감옥의 죄수였으나 그의 생활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갔고 마음의 주소는 하나님의 품에서 일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므로 포로의 신세로 구리굴에 결박되어 수천리 아국 땅에 끌려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으나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남은 자는 사람을 겁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앗수르의 앞잡이가 되었던 자들은 잘될 것만 같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죽을 줄만 알았는데 믿을 지키다가 죽으려던 사람이 살아 남고 앗수르의 앞잡이 노릇이라도 하며 살아 보려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처음에는 몸은 죽어도 신앙의 절개만은 남기자고 죽음을 각오했더니 오히려 이들이 남았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앗수르 군대가 밀려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격정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군이 나타나 앗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앗수르와 내통하던 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육신도 영혼도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믿음만은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되어 살아났습니다.

(2)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며 기를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27절)

몸은 감옥에 갇혀도 신앙 양심이 자유하면 얼마 후에 육신도 자유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자유를 팔아 먹는 사람은 육신이 자유할 것 같으나 영혼은 벌써 마귀의 종이요 육신도 악한 자의 종으로서 영육의 자유를 잃고 지옥의 죄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에도 남은 백성이 많아야겠습니다. 한국에 남은 자의 자격을 가진 신자가 많으면 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 남고 남은 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없다면 한국은 얼마 못 가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헌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남아 있는 신자가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생활을 하면서도 그 심령은 자유로웠고 감옥의 죄수이면서도 영혼이 자유로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 원수에게 잡혀 갔어도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3)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앗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먹으려고 싣고 왔던 것들을 모두 실어다가 예루살렘 시민들이 배부르게 먹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명도 넉넉해졌습니다.

(4) 천국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3. 남은 자의 승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남은 자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싸움을 잘하여 이긴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심리전을 잘하여 이긴 것이 아니라 이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남은 자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승리를 주시기 전에 먼저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앗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이 앗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팽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말라"(24절)

둘째, 그 동안에 잘못된 죄를 철저히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수를 보며 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찾아서 회개만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앗수르를 쳐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랜 판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같이 하실 것이며 팽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26절)

미디안 사람이 오랜 바위에서 어떻게 망했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7, 8년간 탄압을 했습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밀 보리를 거두어도 타작을 마음놓고 하지 못했습니다. 타작을 해 놓으면 미디안이 모두 빼앗아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 용사를 거느리고 질그릇과 횃불과 나팔을 준비해 가지고 나가 미디안 족속과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창 한 번 쓰지 않고, 칼 한 번 빼지 않고도 미디안을 이겼고 오랜 바위에서 오랜 장군의 목을 잘랐습니다.

또 애굽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좇아 애굽 군대가 갈라진 홍해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벼랑처럼 솟았던 홍해 물을 갑자기 합치시어 이스라엘 민족이 칼 한 번 뽑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겁내지 말고 하나님만 무서워하고, 지은 죄를 숨기지 말고 어서 빨리 회개하고, 육신이 죽으면 영혼만이라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원수,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면 육신은 굶고 매 맞아 기한 전에 죽을 것 같아도 육신도 죽지 않고 잘 살고 평안도 길이길이 남고 하늘나라에서 그 이름이 빛나게 되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유대에 남은 백성을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남은 백성이 많아야겠습니다. 한국에 남은 자의 자격을 가진 신자가 많으면 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 남고 남은 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없다면 한국은 얼마 못 가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헌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남아 있는 신자가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 Next Sunday's Message By Rev. Kim, Sung Kwan ●

Hanun

(Nehemiah 3:30)

After the collapse of Jerusalem the Israelites were exiled. Through God's grace He allowed them to return. The first exiles from Babylon came back around 537 BC with Zerubbabel. Their purpose was to restore God's presence and rebuild His temple. The second exiles returned with Ezra around 458 BC with the goal of reformation and recovery. The third exiles returned with Nehemiah around 444 BC with the objective to rebuild the walls and gates of the city.

As God's chosen people, it was important for the Israelites to come back to Jerusalem because of their belief in the covenant God had established with Abraham, Isaac, Jacob and David. It's important to grasp the significance of the Israelites' strong desire to return to their country. They really loved God and really believed in God's covenant. They really worked with all their heart to rebuild the walls and gates of Jerusalem.

To illustrate the important role in the rebuilding of Jerusalem's walls and gates, certain family names are written in the book of Nehemiah. In particular, Nehemiah 3:30 states, "Next to him, Hananiah son of Shelemiah, and Hanun, the sixth son of Zalaph, repaired another section. Next to them, Meshullam son of Berekiah made repairs opposite his living quarters." Most Christians initially read quickly through this verse and miss an important lesson. Even when reading it again, many Christians don't see any significance in how this applies to their life. Their eyes only see different people building different sections of a wall, their hearts miss the true picture.

Open your heart and see something spectacular! The sixth son of Zalaph, whose name is Hanun, repaired a whole section of the wall with Hananiah. The key question becomes where were Zalaph's other five sons? The sixth and youngest son, the one with the least experience and knowledge, in general the weaker son helped repair the wall. Hanun's elder brothers did not help with God's work. Only Zalaph's sixth son did the work of God.

Nehemiah pictures whole families returning to their promised land and clearly shows that not everyone was willing to work towards fulfilling their goal. This evidence is further confirmed in Nehemiah 3:5, "The next section was repaired by the men of Tekoa, but their nobles would not put their shoulders to the work under their supervisors." The Israelites traveled long distances and their hearts



● 김성관 목사의 다음 주일 설교 ●

하 눈

(느헤미야 3:30)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첫번째 포로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주전 537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며 주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두번째 포로들은 개혁과 회복을 위하여 에스라와 함께 주전 458년에 돌아왔고, 세번째 포로들은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와 함께 무너진 성곽과 성의 문들을 수축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귀환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과 맺으셨던 주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오고자 하였던 간절한 소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문들을 수축하기 위하여 전심으로 일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과 문들을 수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을 열거하는 중 느헤미야는 특정한 가족들의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장 30절에서는, "그 다음은 셀레미의 아들 하나나와 살람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므술람이 자기 침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구절을 읽어가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반복해서 읽더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모르는채 지나쳐 버립니다. 그저 다른 여러 사람들도 성벽의 다른 부분을 중수했다는 연속되는 사실에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실상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열고 놀라운 모습을 보십시오. 하눈이라 일컫는 살람의 여섯째 아들이 하나나와 성벽을 재건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은 살람의 다른 다섯 아들들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의 막내아들, 경험이나 지식이 가장 적고, 가장 연약한 아들이 성벽 중수하는 일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눈의 형들은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았습니 다. 오직 살람의 여섯째 아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가족이 다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왔으나 모든 자들이 다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 데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더욱이 느헤미야 3장 5절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부치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 거리를 여행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온갖 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눈은 그의 손을 그의 가족과 하

loved God, yet some were not willing to dirty their hands. Hanun used his hands for his family and God! The sixth son of Zalaph has his name in the Bible, not his older and more experienced five brothers.

Today, a similar picture is found in many churches, communities and families. Many Christians who are professionals, technical experts and masters in many fields are unwilling to dirty their hands. And on the other side of the picture, many Christians who are unskilled, unprofessional and inexperienced are also unwilling to dirty their hands. It's a sad state of affairs when some call themselves Christians and do not work for Christ.

Like Hanun, how many Christians are really true servants? Hanun was not only willing to do God's work but did God's work. He was not only willing to dirty his hands but did dirty his hands. His brothers may have been smarter, more experienced, more talented, more everything and yet it was he whose faith God used to build a whole section! Even those who had the talent, the nobles, didn't think it "proper" or "fitting" to do the work God had set out for them because of their pride. And they did miss out on an opportunity of a lifetime!

The key is having a pure heart! It truly does not matter to God if you have twelve doctorates or if you never even went to school. It doesn't matter if you are old or young, if you are weak or strong, if you are good looking or not so good looking. These things don't matter! God provides the talent needed for each task. What really matters is having a pure heart and being God's servant in whatever capacity He chooses to use you.

So don't get discouraged. If you think you have no talent, you will be utterly amazed at the things God can do through you. And if you have an abundance of natural talent, you will be astonished at the things God has in store for you! The Holy Spirit enables you to accomplish all God's work. The exact ingredients for a pure heart requires your faith, trust and most importantly your love for Jesus Christ. Remember,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Jesus and if our faith is the size of a mustard seed, we can move mountains!

All it takes on our part to be a true servant, as Hanun clearly was, is a willingness to love the Lord with all our hearts and be willing to use our hands in whatever capacity the Lord sees fit. The Holy Spirit is our personal guide and instructor, given to us through Christ. If we carefully listen, His voice will forever provide our strength and wisdom to follow God's will. Pride disables our hearing capabilities but a pure heart hears everything.

나눔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보다 더욱 경험이 많은 그의 형들이 아니라 살람의 여섯째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은 교회들과 공동체들, 그리고 가정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전문 직업인들, 기술자들, 그리고 여러 분야의 대가들 역시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기를 즐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전문성, 또는 일의 풍부한 경험이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낯은 일 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부르면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실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과 같은 진정한 종들일까요? 하늘은 하나님의 일 하기를 원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행하였습니다. 그는 팔을 걷어붙이고 낯은 일을 즐거이 담당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보다 더욱 똑똑하고, 더욱 경험이 많고, 더욱 은사가 많으며, 모든 면에서 뛰어났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그의 믿음을 통하여 주의 성전의 벽을 중수하는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과 은사가 있는 귀족들일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일을 하는 것을 적합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평생에 단 한번 있었던 놀라운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핵심은 순수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두 개의 박사학위를 가졌든지 아니면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았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연약하거나 강하거나, 또는 잘 생겼거나 잘 생기지 못했거나 하는 것 등은 주님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역량으로, 사용

하시든지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알게 될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인하여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 큼이라도 있다면 우리들은 산까지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진정으로 그러하였듯이, 우리들이 진정한 종이 되려면 우리에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어떠한 일이라도 즐거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으로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의 깊게 듣는다면, 주님의 음성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힘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지만 오직 정결한 마음은 모든 것을 들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하늘이 진정으로 그러하였듯이, 우리들이 진정한 종이 되려면 우리에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어떠한 일이라도 즐거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으로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의 깊게 듣는다면, 주님의 음성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힘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지만 오직 정결한 마음은 모든 것을 들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작은아버님께 드리는 전도 편지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생각할 때

박 영 선

(7교구, 충현전도학교 훈련생)

안녕하세요.

언제부터인가 작은아버님께 편지를 써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 사회가 너무 빠르게 돌아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이고, 자신의 사고에 별 자신이 없는 젊은 세대이기에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전 작은아버님의 조카이고, 내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가족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한번쯤은 제 마음을 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전 유난히 어릴 때의 기억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가족의 막내로 여러 삶을 일찍 몸으로 배우고 느끼며 성장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의 생활이지만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가족의 "정신적 풍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삼촌(아찌)과 고모와의 생활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모가 가르쳐 준 동요, 야구장을 데려가 준 아찌 그리고 많은 대화들... 참 자유로웠

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그 자유로움은 훌륭한 아버지를 둔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가 고1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생각이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빈 자리는 제게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빈 자리는 너무 큰 슬픔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추억으로 인해 저보다 더한 안타까움으로 사시는 고모와 작은아버님이 계시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에게 아버지와의 추억을 아름답게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작은아버님, 어머니입니다. 아버지께 대한 추억의 모든 것을 아직도 소유하고 계시니 참으로 힘이 됩니다.

작은아버님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나무도, 꽃도, 바다도, 바퀴는 계절도, 그리고 사람도 좋아합니다. 사춘기 시절 황홀하게 하던 음악, 음악가, 영화, 영화 배우, 순수함을 간직하여 홀

륭한 과학자가 된 사람들, 인생을 깊이 사랑하는 철학자, 사상가들, 근육좋은 스포츠맨들... 세상을 살 만하게 해주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 가지 형태로, 한 방향으로만 몰고 가는 듯한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그대로 두고 구경하시는 듯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저를 지배하는 말쑤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고 그것을 깨달을 때 오는 자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우주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생활 속에도 위대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은 우주적인 진리의 위대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를 위해서일까요. 사람에게만 살면서 이 순간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순간이 있는 듯합니다. 저는 올해 그 순간을 겪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제 마음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생각, 판단, 감정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에 끝을 보는데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계를 느낀 구석구석에 그 분이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엄청난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고귀한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생각, 경험으로는 도저히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해되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각자 어떤 계기를 통해 주인을 만나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인류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누구나 의지를 동원해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 주신다는 것, 자기 생각으로가 아닌 그가 보내신 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하나님은 편협한 인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감싸안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친히 오셔서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작은아버님 사랑합니다.

작은아버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길 소원합니다. 복음 -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저를 통해 전달하는 말의 한계로 복음이 낮아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수억분의 일입니다. 우리 가족의 큰 위치이신 작은아버님이 복음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예민함과 감성이 중요한 듯합니다. 작은아버님은 충분한 소질이 있으십니다. 작은아버님의 깊은 영으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햇빛 좋은 날 조카 영선 올림

☞ 이집트 및 케냐 선교지 답사기행-4 ☞

맛사이의 미래는 하나님 손 안에

이 승 림

(목사, 선교위원회 지도)

고은빈 평신도선교사

고은빈 평신도선교사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약 2시간 반 가량 남쪽에 위치한 시골에서 맛사이 부족 어린이들을 위하여 사역하고 있었다. 국도에서 약 30분 가량 길이 험한 내륙지역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레레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였다. 그곳의 초등학교에서는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고 평신도선교사의 숙소로 가서 물어보니 고 평신도선교사는 학교에 있다고 하였다. 우리들이 학교를 향하여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멀리서 우리를 향하여 반갑게 뛰어오고 있는 고 평신도선교사를 보게 되었다. 한창 멧을 내며 세상을 만끽하며 살고 있는 그 나이 또래의 처녀들을 생각해 보니 우리를 맞으러 멀리서 달려오는 고 평신도선교사의 모습은 너무나도 소박하다 못해 안쓰러운 정도로 초라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콧등과 이마에 멧헌 구슬땀을 닦으며 밝게 미소지으며 우리를 반기는 그녀의 모습은 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였다.

우리는 고 평신도선교사를 따라서 그녀가 사역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학교에 다다르자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로 인하여 짹짹 놀랐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같이 먼저 고 평신도선교사에게 머리를 내미는 것이었다. 고 선교사가 한 아이씩 어린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그들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오는 것이었다. 곱실거리리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머리를 한 아이씩 쓰다듬어 주면서 나는 그들

이 고 평신도선교사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것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선생님에게 인사하면서 머리를 내미는 그들은 비록 초라하고 가난한 아이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지극히 맑고 깨끗하였으며 맛사이 부족의 미래가 저들에게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하자 그들은 너무나도 귀한 맛사이의 미래 일꾼들로 보여졌다.

학교는 색깔도 없고 유리창문도 없는 시멘트 블록으로 지은 지극히 단순한 건물이었다. 교실 안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년별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시멘트 바닥에 놓인 나무 책상들은 수효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길다란 의자를 책상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교실 뒤편 앞에는 칠판 대신에 시멘트벽에 까만 페인트를 칠하여 칠판구실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몹시 가난하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한다면서 고 평신도선교사는 우리를 데리고 아이들의 점심이 요리되고 있는 허름한 식당으로 갔다. 그곳에는 그저 커다란 솥만 하나 불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솥 안에는 콩죽이 준비되고 있었다. 그저 물에 콩만 가득히 넣고 끓여서 콩죽을 한 공기씩 주는 데 그것이 아이들의 점심이라는 것이었다. 먼 곳에서 걸어온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그것이나마 먹어서 보낸다는 것이었다. 실로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케냐는 초등학교가 8년제인데 현재 그곳에는 학년별로 교실이 하나씩 배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4학년까지 학생들

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교실이 4개밖에 준비되지 않아서 곧 아이들이 진급하면 그들을 위한 교실이 준비되지 않아서 하루빨리 교실을 증축해야만 되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창문도 없고 실내장식도, 칠판도 없는 교실 한 칸을 짓는 데에는 돈이 얼마 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현지인들은 너무나 가난하여 교실을 증축할 힘이 없고 또한 일꾼을 구하기도 여간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그곳 실정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놀고 있더라도 여자가 모든 일을 다 하며 더욱이 자기의 아이들을 위하여 교실을 짓는 일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로 답답한 현지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의 변화는 오직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이다. 나는 충현의 젊은이들이 단기사역으로 이곳을 찾아와 교실도 지어 주며 아이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고 평신도선교사가 전기도 전화도 없는 곳에서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적응하여 지내고 있지만 비록 자주 물리는 것이 참 어렵다고 했다. 한번 물리고 나면 오랫동안 건디기 어렵게 가렵고 또한 상처가 오랫동안 남는다는데 아무리 비록 약을 쳐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녀의 다리와 팔에는 비록 물린 흔적이 역력하였다. 우리 일행은 현지인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식사를 대접받았다. 식사 후 우리 일행이 가져간 마른 병면 한 박스와 몇 가지 반찬거리를 받은 고 평신도선교사는 어린아이처럼 너무나도 좋아했다. 우리들은 아무런 아쉬움 없이 늘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음식에 불과하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 아쉬웠던 음식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자동차가 없어서 꼭 가봐야 할 다른 동네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



▲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의 각오없이
는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 아프리카이다. 레레초등학교 교장,
학생들과 함께 한 고은빈 평신도선교사.

는 그녀의 모습과 다른 동역자 없이 선교사로는 홀로 외딴 그곳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아프기라도 한다면 자동차도 없고 동역자도 없는 그녀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만 하였다. 잠시와 반가운 만남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떠나려고 하자 고 평신도선교사는 못내 아쉬움과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듯 하면서도 애써 웃음을 지으려 하였다. 돌아오는 중 길이 좋지 않아서 심하게 흔들리는 자동차 안에서 나는 "하나님, 고 평신도선교사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와 자동차를 보내 주세요"라고 기도하였다. 세상을 향한 욕망들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는 고 평신도선교사를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였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취재수첩

이집트 단기선교 준비 활발 수단 선교 정탐팀도 파견

이집트 단기선교팀이 12월 22일 출국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보다 효과적인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 영성훈련 및 전도훈련, 복음 제시 훈련 등을 실시하고, 문구류(노트, 연필, 크레파스, 볼펜 등)를 수집하고 있다. 이 사역팀은 이승수 목사, 정성기 전도사 외 7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교권 선교 교육 및 훈련, 현지인 및 수단 난민들을 대상으로 개인전도 사역을 전개하고 31일 귀국할 예정이다.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선교지가 회교권인 만큼 이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의 후원이 있어야겠다.

한편 같은 기간 중 수단의 효과적인 선교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노광현 장로, 하대선 장로, 김춘권 장로, 이승림 목사가 수단 선교 현장을 정탐하게 된다.

크로마하프 · 만돌린찬양대원 모집

크로마하프 · 만돌린찬양대에서 12월 한 달 동안 대원을 모집한다. 연습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나사렛홀에서 한다. 크로마하프 · 만돌린찬양대는 주일 찬양예배시 아름다운 화음과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있는데, 크로마하프나 만돌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기 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신청은 구자남 권사(전화 514-6047)에게 하면 된다.

군입대자에게 성탄 선물 보내기로 군입대자 주소 확인 요망

군전도회에서는 연말을 맞아 군입대자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군입대자들에게 성탄선물을 보낸다. 이를 위해 군입대자들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고 있다. 매 주일 군전도회실에서 군 입대자 주소를 접수하고 있다(본당 지하 1층 나사렛홀 옆방, 구내전화 286번).

가칠봉 십자가탑 점등식

지난 11월 27일 최전방 21사단 백두산부대 가칠봉. 영하 15도의 매서운 바람이 부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점등식이 거행되었다. 복녘땅의 굶주린 영혼들의 가슴만큼 시원 바람이 소매 끝을 파고드는 그곳에서, 복녘땅이 코 앞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예수탄생을 알리는 따뜻한 등불을 켜는 것이다. 바람막이조차 없는 그곳에서 시원 손을 부비며 진행된 이 아름다운 행사는 사단장과 참모들 및 우리 교회 성도 79명과 현역병사 1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희수 목사의 설교와 전형준 목사의 기도, 여군 하사관의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글' 낭독 및 점등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복녘의 얼어붙은 땅에까지 전해졌다. 내년 1월까지 커두는 이 등불의 빛이 그 땅을 녹이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는 빛으로, 참된 통일을 기원하는 빛으로 비추어 지기 위해 기도해야 하겠다.



오늘 외국인 근로자 위한 미용사역

선교위원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오늘 선교위원회 사무실에서 미용사역을 실시한다. 한편 계속해서

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따스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에서 쓰던 가전제품(전기스토브, 전기장판, 전기난로 등)과 그릇도 수집하고 있다. 수집장소는 선교위원회 사무실(선교관 406호)이다.

※ 부서 탐방 - 소망부 ※

지혜의 보고 소망부

성경에 노인은 지혜자라 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소망부는 지혜의 보고(寶庫)이다. 어찌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이분들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로 구성된 소망부는 머지 않아 곧 천국에 간다는 구체적인 소망을 안고 있는 공동체이다.

소망부는 만 70세 이상의 남녀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주 출석인원은 약 450명 정도이다. 주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갈릴리홀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에는 오랜 유랑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 목척자를 코 앞에 둔 순례자와 같은 진실함이 있다. 하늘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의 가식 없는 예배 모습이 감동스럽다.

이렇게 진지한 믿음을 가진 소망부는 김광남 부장님, 이종대 목사님, 정복인 전도사님을 비롯 72분의 선생님들로 구성된다. 한 반은 10명 내외로 편성되어 있는데 할머니 39명, 할아버지 12명이 있다. 선생님들은 내 부모를 모신다는 정성으로 노인들에게 사랑과 소망을 전하기에 여념이 없다.

사실 나이 드신 어른들을 모시는 일은 쉽지 않다. 생의 마지막은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리이어서 연세 높으신 분들은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는 다른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텐데도 노인들을 모시는데 온갖 정성을 쏟으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보기 좋다.

소망부의 교육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이분들의 생전에는 믿음의 조상답게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소천시에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

에게는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 그래서 교사들은 어른들을 모시면서 늘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한다. 자신의 신앙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분들에게 신앙의 확신을 심어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으로 귀한 일은 이분들은 당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끝까지 봉사를 하신다는 사실이다. 한 가정에도 어른이 계시 가족의 본이 되듯이 소망부 어른들은 소그룹을 이루어 봉사하시는 모범을 후손들에게 보여 주신다. 이분들은 교회 구석구석의 잔손이 가는 일들을 소리소문 없이 실천하고 계셨다. 예를 들어 보자. 본당 의자 뒤의 현금 봉투가 항상 가지런히 꽂혀 있는 것을 눈여겨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소망부 어른들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스쳐 간 흔적이다.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중요한 일은 영혼 구원의 매개 역할이다. 이분들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끝내고 나면 부모님 생전에 믿지 않던 자녀들이 신기하게도 신앙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가정들이 많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이분들의 취미 생활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노인들은 건강이 여의치 않아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역삼전철역의 에스컬레이터는 운행을 중지할 때가 대부분이어서 전철을 이용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불편을 겪고 계신다.



한편 소망부에서는 1998년 교육 계획으로 교회 내에서 수련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예전에 소인원일 때는 기도원에 가거나 소풍을 가는 것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인원수가 너무 많아 외출은 힘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영성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소망부에서 전 교인들에게 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다. 그것은 소망부에 해당하는 어른들을 꼭 출석시켜 달라는 것이다. 오시기만 하면 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 이 땅에서 즐겁게 살 수 있다. 또 돌아가실 때에 평안히 가실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교사들은 단단한 결심을 보여 준다. 어른들을 대에배만 보고 돌아가시게 하지 말고 꼭 소망부에 모셔 오기를 거듭거듭 부탁을 드린다.

한 평생을 살고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신 소망부 어른들의 무기인 오래고 긴 기도는 우리 교회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다. 노년을 기도에 바치는 삶의 모습은 참으로 근사하다. 소망부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 길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글/정연희 기자, 사진/이운구 기자)

사진 찍으세요

- 찍는 곳
홍보실(선교관 408호)
- 찍는 때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낮 12시 30분~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7시 30분
- 찍을 사람
원로, 은퇴, 시무장로 / 교역자 / 안수집사 / 원로, 은퇴, 시무권사 / 남녀 서리집사
- * 교구에 관계 없이 아직까지 사진을 찍지 않으신 제직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직원 모집

1. 자격
세례를 받은 자로 PC 사용이 가능한 자
1) 경리직 및 방송실 직원
① 경리직
• 여, 기혼자 가능 - 충현기도원
(경기도 광주군 소재) 근무
② 방송실 직원
• 남, 30세 전후 경력자 우대
③ 문의 : 충현교회 사무국
(552-8200 교환 402)
- 2) 유아원 교사직
① 여, 30세 이하, 유아교육 전공자로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유경험자 환영)
② 문의 : 충현유아원(554-7054)
2. 제출서류
1) 자필이력서(사진 포함)
2) 주민등록등본
3) 타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기타 서류는 채용 후 제출)